

잠 못드는 열대의 밤 ... 광주 오늘 35도 폭염



열대야가 계속된 1일 밤 광주시 북구 양산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음악분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세계 마스터즈 수영대회 5일 개막

동호인 축제 ... 18일까지 광주·여수 5672명 참가

오는 5일 개막하는 2019 광주 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1일부터 선수들이 속속 입촌하는 등 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1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미국과 오스트리아 선수 12명이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에 입촌한 데 이어 일부 선수들은 광주 시내 게스트 하우스와 호텔 등 숙박업소에 집을 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참가자 총 5672명 가운데 2000여명은 선수촌에 머물 예정이다. 오픈 워터 수영에 참가하는 600여명은 여수에, 나머지 3000여명은 게스트 하우스, 호텔, 숙박업소 등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5일 아티스틱 수영과 수구를 시작으로 18일까지 14일간 광주와 여수 일원에서 펼쳐 지는 대회에 출전한다. 대회 시작에 앞서 아티스틱·수구 동호인들은 경기가 열리는 여주종합체육관과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오는 3일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마스터즈 대회는 세계 각국 수영선수들이 국가를 대표로 열전을 벌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달리 아마추어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지구촌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다. 대회에서는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수영, 오픈 워터 수영 등 5개 종목, 59개 세부 경기가 펼쳐진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히트상품이었던 하이다이빙은 위협성이 높아 마스터즈 대회에서 제외됐다. 경기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사용했던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경영·다이빙), 남부대 수구경기장(수구), 여주종합체육관(아티스틱 수영),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오픈 워터 수영) 등이다.

이번 마스터즈대회에는 84개국에서 선수 4032명, 동반인 572명, 코치 201명, 미디어 392명, 국제수영연맹 관계자 153명, 기술입원 317명 등 모두 5672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10개 동호회, 1034명이 참가 신청서를 냈다. 종목별로는 경영 3010명, 다이빙 182명, 아티스틱 수영 142명, 수구 507명, 오픈 워터 수영 552명이 등록했다.

경기 일정은 아티스틱 수영과 수구 5~11일, 경영 12~18일, 다이빙 13~18일, 오픈워터 수영 9~11일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는 달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열린다.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개회식은 경영 시작 전날인 11일 오후 7시 30분 '플레이잉 워터'(Playing Water)라는 주제로 남부대 우정의 동산에서 열린다. 폐회식은 18일 오후 7시 30분 빛의 축제라는 주제로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양항 '아시아의 로테르담' 으로 개발

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2040년까지 7조3000억원 투입
물류시장 선도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발전 계획

광양항이 아시아의 '로테르담'으로 거듭난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현재 1990년대와 비교해 컨테이너 물량은 감소했지만 에너지화학 유지, 스마트화, 자동화, 친환경 등의 대응으로 유럽 물류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을 확정했다. 광양항은 제철·석유화학산업지

원 및 자동차·컨테이너 화물 처리,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R&D) 등에 최적화된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총 7조3000억원(재정 1조3000억원·민자 6조원)이 투자된다.

또 인근에 제조·물류 기업이 입주하는 1115만㎡의 배후부지를 공급하고 석유·철재·목재 등의 화물전송 부두 조성, 배후단지 전력용량 확대(22.9kV→154kV) 등을 통해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묘도 남측 항로를

양방향 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폭을 150m에서 300m로 확대하고, 배후도로 4.9km를 신설한다. 항만 배후 산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설 공급 및 국산자동화시스템 실증을 통해 '한국형 지능화 항만'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목포신항에는 서해권역 해경 정비장을 신설하고, 조선·철강·자동차 등 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두시설 및 배후 교통시설을 설치한다. 모두 4000억원이 투입되는 목포신항에는 화물부두는 2선석, 항만 배후부지는 106만㎡, 배후도로는 1.7km 등의 사업이 예정돼 있다.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은 항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최상위급 계획으로, 지난 1997년 최초 고시 후 이번에 향후 20년 계획을 담아 다시 수립됐다.

해수부는 1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고시 이후 전국 10개 신항만에 부두 156선석, 배후부지 1176만㎡를 조성해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했다. 부산항 신항은 지난해 2166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등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세계 6위, 환적물량 기준 세계 2위 항만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광양항 역시 지난해 세계에서 11번째로 3억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종합물류항만으로 성장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전국 12개 신항만에 2040년까지 재정 16조819억원, 민자 25조7734억원 등 총 41조8553억원을 투자해 부두 총 119선석, 배후부지 3956만㎡를 조성하고 연간 4억3000만톤의 화물 처리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

2차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2040년 국내 12개 신항만의 물동량은 총 18억 5000t(2017년 13억2000t), 컨테이너 처리는 총 4873TEU(2017년 2717TEU) 규모로 늘어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선박 대형화, 친환경 LNG 추진선 출현, 항만 미세 먼지 저감 등 항만과 관련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반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화이트리스트 배제 댄 대통령 대일 메시지

靑, 장관들 소집 대책 논의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받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 회의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장관들은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비해

단계적 대응 시나리오를 잠정적으로 마련해둔 상태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나선다면 문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기와 형식은 2일 각의 결정 직후 곧바로 발표하는 방안, 또는 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내거나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발표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 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대일 메시지를 내고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고강도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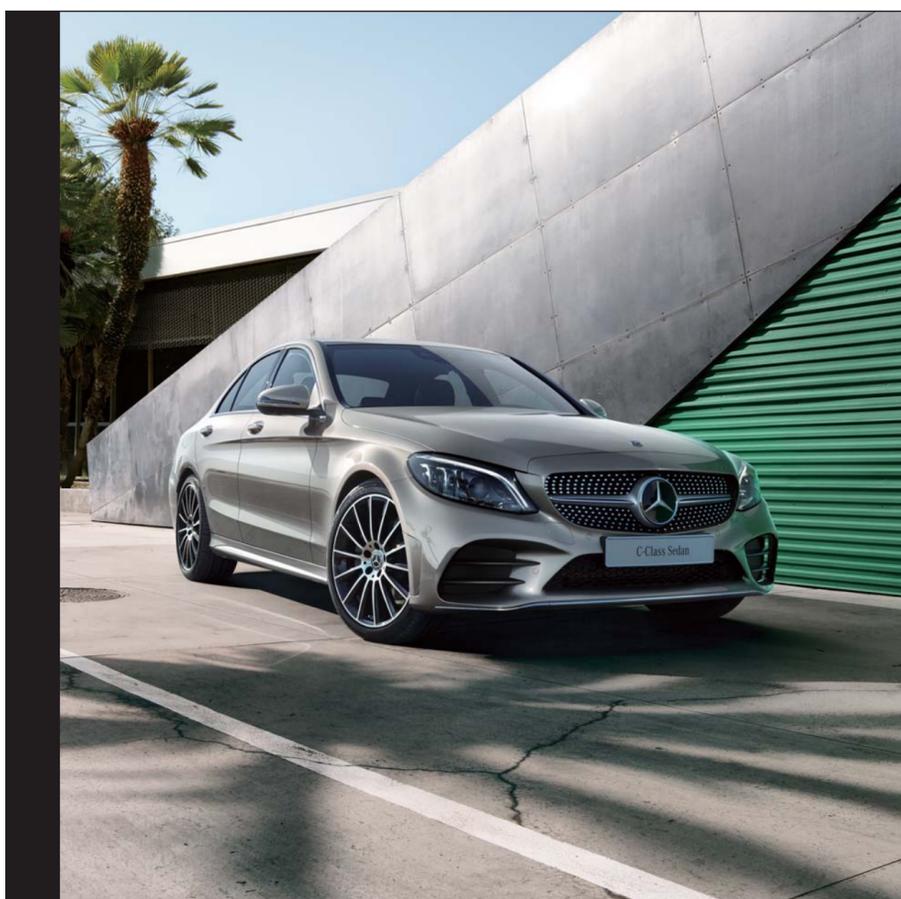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전남 폭염 위험도 가장 높다 ▶7면

아시아 문화원류 - 넬말 '쿠마리' ▶14면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18면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